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을 위한 음악교육의 방향 탐색 - 누스바움의 감정론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Direction of Music Education for Communication in the Post-Truth Era: Focusing on Nussbaum's Theory of Emotion

최진경*

Jin Kyong Choi

초록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믿음에 의지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포스트 트루스의 배경에는 21세기 디지털 발달에 기반한 디지털 소통이 자리하는데, 이는 동일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감정을 사유로 바라본 누스바움의 감정론을 토대로 음악교육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탐색하였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감정은 서사적 구조를 갖는데, 예술은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 감정과 사유를 연결하도록 도움으로써 소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을 위하여 서사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음악 내·외적 읽, 음악 교과서 수록곡의 다양성과 균형, 입체적인 음악학 습활동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포스트 트루스, 누스바움, 감정 교육, 서사적 상상력, 소통을 위한 음악교육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our society today is going through a post-truth era that relies on emotions and personal beliefs rather than objective facts. Behind the post-truth is 21st-century digital communication, which interferes communication between communities by strengthening connections between people who share similar emotions and thoughts. The researcher explores what the direction music education should take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e post-truth era based on Nussbaum's theory of emotion, which regards emotions as thoughts. According to Nussbaum, emotions have a narrative structure, and art can provide a platform for communication by connecting emotions and thoughts through narrative imagination. Therefore, music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 direction that can nurture narrative imagin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internal and external knowledge of music, diversity and balance of musical pieces in textbook, and three-dimensional music learning activities should be organically integrated.

Key words: post-truth, Nussbaum, emotion education, narrative imagination,
music education for communi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cerves@naver.com

Visiting Researc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Received: 19 August 2022, Reviewed (Revised): 25 September (28 September) 2022, Accepted: 25 October 2022

© 2022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들어가며

올더스 헉슬리(A. Huxley, 2007)가 1932년에 쓴 공상 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는 21세기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공동체, 동일성, 안정’을 최고의 덕으로 여기며, 우울감이나 괴로움과 같은 부정의 감정들은 ‘소마’라는 약으로 해결한다.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계획된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행복하다 여기고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은 묻히고,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저급한 문화만을 좇으며 사유하지 않는다. 『멋진 신세계』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21세기의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연결하며,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정보의 탐색과 습득을 쉽게 만들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들은 왜곡, 변형, 조작되기 쉬워졌다. 이에 더하여, 소셜 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편향된 정보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비판적으로 식별하고 사유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Nguyen, 2018, 2020). 정보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와 증거에 근거한 추론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마음으로 진실하다고 느끼는 것”에 근거하여 믿는 경향이 생겨났는데(Illouz, 2019; Kavanagh & Rich, 2018; Metz et al., 2018; Prado, 2018),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McIntyre, 2018). 가짜 뉴스들은 디지털을 통해 쉽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포퓰리즘을 앞세운 뉴스와 선동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옥스퍼드 사전은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 2016년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post-truth)’를 선정하였다.

“감정(emotion)과 개인적 믿음(personal belief)이 객관적인 사실(objective facts)보다 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Lexico, 2016)”이라고 정의되는 포스트 트루스는 COVID-19를 겪으며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전 세계적 전염병 발발에 사람들은 ‘백신의 안전성, COVID-19의 원인과 진원지’와 같은 이슈들에 대하여 사실에 기반한 추론이나 검증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에 따라 반응했다. 다음은 COVID-19에 관련된 뉴스들을 발췌한 것이다.

5세대 이동통신(5G)이 COVID-19를 확산시킨다는 가짜 뉴스가 영국에 퍼지면서 버밍엄과 머시사이드의 기지국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BBC News Korea, 2020). 특정 회사의 백신이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22). 빌 게이츠는 자신이 백신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추적이 가능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

려 한다는 음모론이 ‘소셜 미디어의 부상과 사람들의 공포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 다(Na, 2021).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COVID-19 이후 급증하고 있다(Berman, 2020).

COVID-19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염병의 원인과 발생지, 백신 부작용과 백신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 언론인, 전문가를 자칭하는 이들에 의해 사실, 거짓이 교묘히 합쳐져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미디어 소스는 당파적인 양극화로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어냈다(Coleman, 2021; Hart, Chinn, & Soroka, 2020; Gilardi, Gessler, Kubli, & Muller, 2021; Jiang et al., 2020). 이러한 배경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리한다. 공포, 의심, 혐오,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는데(Emke, 2017), 인간은 두려움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두려움은 공동체의 유대나 결속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백신 패스를 펼치는 정부, 전염병의 근원지일지 모르는 아시아 인, 진실을 속이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과학자나 기업가 등과 같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공동의 적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에 기반한 정보들은 가공되고, 오염되었으며,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옹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머무르며,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이나 뉴스에 대하여 같은 감정을 느끼는 구성원들과 함께 동일성과 안정감으로 연결되었다. 요컨대 디지털 소통의 일상화로 인하여 물리적이고 체화된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부딪힘, 논쟁, 갈등,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감정적 안정주의(emotional safetyism)가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만연하게 되었고(Bowell, 2017; Rauch, 2021), 이는 진실을 향해 끊임없이 대화하게 하는 공동체의 소통을 막아하고 있다(Ryu, 2020).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교육을 논의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 능력(Lynch, 2016),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진(Buckingham, 2019; Lee & Kwon, 2020), 과학적, 비판적 사고 증진(Bowell, 2017)과 같이 올바르게 사유하고, 인지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즉, 선행연구들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문제를 소통이 아닌 비판적 사고의 부재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포스트 트루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의 연결만을 강화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막아서는 ‘단편화되고 공동화된 감정 즉, 사유를 막아서는 감정’과 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감정을 중심으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감정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그에 따른 인지적 행위’임을 주장함으로써, 감정과 사유를 연결한 누스baum(Nussbaum, 2003)의 감정론을 토대로 감정과 밀접한 음악 교과가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에 어떠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 트루스는 무엇이며, 이것의 근본적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둘째, 뉴스바움의 감정론은 무엇이며, 어떻게 감정과 사유를 연결하는가? 셋째, 이를 음악교육에 적용했을 때, 음악교육은 어떠한 방향과 가치를 드러내는가?

II. 포스트 트루스

포스트 트루스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 현상에서 비롯된 용어로 2016년 영국의 브렉 시트 투표(Brexit vote)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영향을 미쳤음을 풍자한 것이다. 즉, 포스트 트루스에서 포스트(post-)는 포스트 공산주의(post-communism), 포스트 페미니즘(post-feminism), 포스트 디지털(post-digital)과 같이 전 시대와 연결되지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Cramer, 2015), 포스트모더니즘에서처럼 ‘전 시대의 종료, 반대, 탈피’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포스트 트루스는 ‘진실을 찾기가 힘들어진 시대, 진실에서 벗어난 시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1세기 디지털 발달에 기반한 디지털 소통이 자리한다. 정보를 0과 1의 이진법 비트(bit-binary digit)로 재현하는 디지털 체계에서 정보는 취약해진다. 예컨대 누군가가 올린 텍스트의 일정 부분을 없애거나, 새로운 텍스트를 넣는 방식으로 원본은 편집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화된 정보는 쉽게 변형된다. 디지털은 정보에 접근하고 조작하기가 쉬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정보의 검색을 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생산자이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프로슈머 시대를 만들었지만(Choi, 2021; Collins, 2014; Gunkel, 2012), 진실에 대한 탐색과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Chu, 2021).

소셜 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유튜브와 구글,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의 정보와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와 비슷한 콘텐츠라는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content based filtering)’을 통해 디지털 세계 안에서의 연결을 편향되게 만든다. 예컨대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백신 부작용을 검색하면,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는 콘텐츠가 지속해서 노출되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그의 우려는 확신으로 그리고 나아가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게 하는 정부에 대한 혹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정보와 뉴스를 얻는 주된 기제가 사실을 왜곡하기 쉬운 소셜 미디어라

는 점이다. 다음은 포스트 트루스 현상을 소셜 미디어의 폐쇄된 인식론으로 바라보는 Nguyen(2018)의 설명이다.

정보의 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증거에서 다른 사람들이 미묘하게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적 공동체(intellectual communities)가 더는 기본적인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듯이 더는 진실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충성이 기본적인 추론 능력을 대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 웹 페이지, 소셜 미디어 피드라는 지적으로 뚫을 수 없는 층(intellectually impenetrable layer)에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 만든 반향실(echo chamber)에 갇혔을 수도 있습니다 (Nguyen, 2018, pp. 1-2).

Nguyen(2018, 2020)은 포스트 트루스와 가짜 뉴스의 배경으로 소셜 미디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식론적 거품(epistemic bubble)’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식론적 거품이 사람들을 ‘반향실(echo chamber)’에 가둠으로써 진실을 더욱 회피하게 만드는 현상을 우려하였다. 인식론적 거품은 추천 알고리즘을 따라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들 즉,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생각을 놓치는 것이며, 반향실은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주로 온라인 커뮤니티¹⁾를 중심으로 생성되며, 이후 오프라인까지 영향을 미친다-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반향실은 인식론적 거품보다 훨씬 견고하게 형성됨으로써, 이곳에 속한 구성원들이 비판적인 사고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반향실 구성원의 신념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구성원들은 그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자료를 가져오거나 인신공격하는 방식으로 신뢰와 도덕성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반향실을 공고히 한다(Chu, 2021; Nguyen, 2020). 요컨대 반향실은 물리적이고 체화된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충돌, 반발, 갈등, 불쾌함, 논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감정적 안정주의(emotional safetyism)에 머무르게 하고, 편향된 연결과 소통만을 생성한다(Bowell, 2017; Rauch; 2021).

이러한 배경에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교육을 논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 능력(Lynch, 2016),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개발(Britt et al., 2019; Buckingham, 2019; Lee & Kwon, 2020), 과학적, 비판적 사고 증진(Bowell, 2017; Chinn, C., Barzilai, S., & Duncan, R., 2021)과 같이 방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

1) 예컨대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정치 커뮤니티, 젠더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여초/남초 커뮤니티, ‘안아기(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털 환경에서 올바르게 인지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즉, 이들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교육 방향을 참(진실)을 찾는 과정과 방법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포스트 트루스의 원인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찾고 있는 McIntyre(2018)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겨진다. 인간 이성(理性)에 대해 의심을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실은 어차피 찾을 수 없다. 진실에 대한 탐색은 가치 없다’와 같은 회의론(Lewandowsky et al., 2017)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만든 배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트루스의 교육이 ‘진실을 탐색하는 과정과 방법’을 향하는 것은 타당하나, 연구자는 이러한 접근으로는 포스트 트루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포스트 트루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다양성, 상대적 차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반향실의 생각만 맞고, 이와 다른 생각은 틀리다’라는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양극의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트루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로만 반향실을 채움으로써,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과 전혀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요컨대 포스트 트루스는 사실에 관한 판단, 검증, 비판적·성찰적 사고의 수행 이전에 그것을 거부하는 감정에 의해 다른 의견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그 문제가 있으며, 이때의 핵심은 ‘단편화되고 공동화된 감정, 사유와 연결되지 못하는 감정, 사유를 막아서는 감정’이다.

따라서 감정을 중심으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비판적 사고에 감정(emo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히는 연구들이(Brun & Kuenzle, 2016; Danvers, 2016; Elgin, 2016; Morton, 2010) 있으며, 이에 따라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Bowell, 2017; Chinn, Barzilai, & Ducan, 2021; Muis, Etoubashi, & Denton, 2020; Muis, Chevrier, Denton, & Losenno, 2021).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포스트 트루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소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증진을 위한 호기심’, ‘지적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즐거움, 혼란, 충만감’과 같은 감정을 탐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즉, 이들은 비판적·합리적·과학적 사고의 증진을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정 일부에 감정을 조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연구자는 감정을 중심으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감정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그에 따른 인지적 행위’임을 주장하고, ‘감정 계발을 위하여 예술 교육’을 강조한 Nussbaum(2003)의 감정론에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III. 누스바움의 감정론

1. 인지로서의 감정

Nussbaum(2003)은 감정을 ‘신체적-느낌(bodily-feeling)’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의 반대편에서 감정을 바라본다. 즉, Nussbaum(2003, pp. 24-25)은 ‘생각과는 무관한 에너지’로서 혹은 ‘몸과 연결된 것’으로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정신적 에너지(이성)와 연결하고 있는데, 감정을 이성으로 바라본 학자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수 있다.²⁾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anger)’가 몸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 예컨대 불공정한 상황에 따른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정서를 신체적 느낌이나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판단으로서의 이성과 연결하였다(Gross, 2007, pp. 40-41). 감정(pathos)에 대하여 인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한 것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에 이르러서이다. Nussbaum(2003)이 자신의 감정론을 신 스토아학파(neo-stoicism)로 칭하고 있듯이, 그녀의 감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스토아학파가 감정을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길(Gill, 2010)은 스토아학파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 심리에 대한 스토아학파의 사상에서 감정의 개념은 동기(motivation)라는 넓은 범주에 속한다. 동기는 외양(appearance), 인상(impression), 충동(impulse)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유익해 보이는 대상이나 행동(외양)에 끌리게 되는데, 이러한 인상이 ‘충동’이나 행동 동기로 나타나기 전에 인상 내용에 대한 동의(assent)가 필요하다. 인상은 ‘x라는 것은 사실이다(That x is the case)’와 같은 명제적 내용의 언어 형태로 구성됨으로써, 충동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감정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합리적인 인상에 동의하는 것이다(Gill, 2010, pp. 145-146).

요컨대, 감정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이유)가 있는데, 동기는 ‘명제적 내용으로 나타나는 외양에 대한 인상, 그리고 이에 대한 동의(판단)와 충동(행위)’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감정에 대한 스토아학파의 견해다. Nussbaum(2003)은 이들의 사유에 기대어 ‘왜 감정을 인지적 측면에서 봐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녀는 (Nussbaum, 2003) 동물이나 인간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외양(외부)의 어찌할 수 없는

2) 반면, 플라톤은 감정(pathos)을 영혼의 질병이라 설명한다(Plato, 2013, p. 164).

상황에 의해 수동적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에 관한 인간(동물)의 사유와 판단으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나를 추월하는 차로 인하여 분노가 생긴다면, 추월하는 차에 놀란 나의 신체적 반응(소리를 지르거나, 놀래서 몸을 들썩거리는 것과 같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월하는 차가 나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판단)하였기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며, 어두운 밤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 오는 것 같은 신체적 느낌이 아니라 ‘나에게 위협을 가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은 ‘무엇에 대한 것(about something)’이다(Nussbaum, 2003, p. 27). 추월하는 차에 대한 분노,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배신감 등과 같이 감정은 대상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은 주체의 관점이나 해석을 내재한 ‘지향적 대상(intentional object)’이다(Nussbaum, 2003, p. 27). 예컨대 추월하는 차라는 대상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일한 감정을 생성할 수 없듯이, 지향성은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감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왜인지 모르겠는 우울함이나 짜증이 나는 기분(moods)’이나 ‘배고픔과 같은 욕구(appetites)’는 대상과 지향성이 없다는 점에서 감정과는 다르다(Nussbaum, 2003, pp. 129-130).

이에 더하여 Nussbaum(2003, p. 28)은 대상에 대한 어떠한 믿음(belief)이 감정에 기반이 됨을 주장한다. 이는 “감정(emotion)과 개인적 믿음(personal belief)이 객관적인 사실(objective facts)보다 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 정의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사람들이 반향실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자신이 믿는 뉴스나 사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믿음과 믿음이 만들어낸 감정 때문이다. 예컨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에 불만을 느끼는 이들이 A라는 온라인 카페에 모여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조금씩 가져갈 닷선 이’와 같은 지향적 대상으로 이민자들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이민자들이 나의 직업을 빼앗을 것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나의 아이들이 이민자들의 자녀들에 의해 역차별을 겪을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형성하게 되면, 이민자들에 대하여 불안, 두려움,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믿음과 함께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되면, 이민자들의 취업, 거주 방법, 범죄율, 이들이 내는 세금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하는 자료들을 찾고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믿음은 강력한 감정을 형성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Nussbaum(2003, p. 30)은 감정의 기반이 되는 ‘대상, 지향성, 믿음’이 내

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감정은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정치가 자기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정치인에 관련된 뉴스나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별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 나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정치적 이슈, 투표,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강력한 감정을 생성하게 된다. 추월하는 차에 분노하거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민자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갖는 것,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절망감 같은 예에서처럼 감정은 나의 삶에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과 연결된다.

하지만 Nussbaum(2003)이 자신의 감정론을 신 스토아학과라 칭하였듯이, 스토아학파의 이론과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 첫째, 스토아학파가 감정을 모두 언어로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어린아이나 동물이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 Nussbaum(2003, p. 127)은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인지까지 포함함으로써, 완전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생명체들이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누스바움은 감정이 현재의 사태를 등록하는 나만의 방식에 언어뿐 아니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담아냄으로써, 감정의 충위를 무한대로 넓힌다. 둘째, 스토아학파는 감정을 거짓된 판단으로³⁾ 바라봄으로써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나, Nussbaum(1997, pp. xviii-xix)은 감정이 추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이는 나와 타자의 감정을 알 수 있다면, 내 생각과 타자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인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체의 가치판단, 지향적 믿음을 마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스바움의 감정론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중시하는 가치와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사유를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를 내 삶에 마주할 수 있게 하며, 타자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치 있어 하는지, 세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위험과 해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Nussbaum, 2003, p. 108 requoted from Lazarus, 1991, pp. 6-7).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정의 인식을 통해 타자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통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

3) 스토아학과(Nussbaum, 1994)는 감정이 외부의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가능이나 가치평가이지만 이러한 평가가 모두 거짓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감정교육이 아니라 감정을 모두 제거하는 초연적, 명상적 삶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누스바움의 감정론과 갈라진다.

2. 서사적 상상력을 통한 행복(well-being)의 실현

Nussbaum(2003)에 따르면, 감정이 인지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언어적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감정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유와 유사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명제(인지)까지 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애정, 증오, 질투, 연민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이와 이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벌어지는 슬픔과 같이, 같은 대상에 대한 감정 변화(증감)를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지로서의 감정을 언어적 명제로만 한정한다면, 감정의 모호함, 가변성, 복합성, 즉흥성, 변덕스러움을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감정의 이러한 특징은 감정을 교육하려는 것을 회의하게 만든다. 감정이 인지적인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을지라도, 사유의 복잡성과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덕스럽게 움직이고 변하는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Nussbaum(2003, pp. 65-66)은 감정이 전형적으로 상상 속에서 사건을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 있음을 주장한다. 예컨대 우리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문자나 전화를 드렸는데 답이 없다면, 다양한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무슨 바쁜 일이 있다가거나, 답을 못할 상황이었지?’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답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이유가 있나? 혹시 저번 만남에서 나의 태도나 말에 기분이 안 좋으셨나? 이렇게 오랫동안 답이 없었던 적이 없는 데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와 같은 다양한 이유를 상상하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감정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감정은 내러티브(이야기)와 다양하게 연결되므로, 상상력이 만들어가는 내러티브는 감정을 포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Nussbaum(2003, pp. 236-237)은 ‘감정이 복잡한 내러티브적 구조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감정에 접근하기 위하여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이 만들어내는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은 다른 방식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감정의 내력(emotion-histor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중략) 감정은 내러티브적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감정에 대한 모든 이해는, 그것의 내러티브적 역사를 파악하고 연구되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다. 다양한 종류의 내러티브적 예술작품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감정의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인간의 자기 이해에 예술은 핵심적 역할을 한다. 즉, 예술작품은 감정적 삶에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다(Nussbaum, 2003, pp. 236-237).

4) 연구자는 감정의 이러한 특징이 이성의 반대편에서 감정을 바라보도록 하였다고 생각한다.

예술작품은 감정의 다양한 종류와 층위로 우리를 초대함으로써 삶에서 겪어왔던 혹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하여 경험하도록 하는데, 이때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 사회의 부조리를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음악으로 표현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예로 들어보자. 관객들은 수잔나와 백작 부인의 이중창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를 들으며 ‘나에게 아직 닥치지 않았고,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내가 백작 부인이라면, 내가 수잔나라면 나는 어떠한 감정과 행동을 할까? 혹은 현대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이 작품의 어떤 지엽적 부분에서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등장인물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진다(Nussbaum, 2003, p.242).

그렇다면 예술에서의 서사적 상상력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술에 참여하며, 예술을 감상하며 단순하게 혹은 아무렇게나 상상하면 되는가? 누스바움에 따르면 아니다. 그녀는(Nussbaum, 2003, p. 242) 상상을 서사적으로 펼쳐나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서사적 상상력을 논리적 사유와 유사하게 만든다. 첫째, 캐릭터들에 대한 감정이다. 이는 캐릭터에 동일시됨으로써 감정을 공유하는 것과 캐릭터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뉜다. 둘째, 텍스트 전체에 구현된 ‘내포 작가(the implied author)’⁵⁾의 인생관에 대한 감정이다. 이것은 공감을 통해 그의 인생관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과 연민이나 비판적 관점으로 반응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셋째,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감정이다. 마지막으로, 삶이나 나에 관해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한 희열과 즐거움의 감정이다.

누스바움은 예술이 이렇게 면밀한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중시하였다.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그에 따른 감정들을 예술을 통해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과거의 기억, 사유, 감정들을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을 미리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 가치 있다. “예술을 통한 서사적 상상력이 과거, 현재,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당혹스럽고 피하고만 싶은 부정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줌으로써, 우울증과 무기력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Nussbaum(2003, p. 429)의 설명처럼, 서사적 상상력은 특정한 상황으로 구현된 삶의 문제에 대하여 감정과 사유를 깊게 연결함으로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처방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최종적으로 서사적 상상력은 ‘잘 삶(well-being)’으로서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

5) 작품과 실제 작가를 분리하며 대안적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Booth(1961)가 문학비평에서 제안한 것이다. Nussbaum(2003, p. 240)은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혹은 읽은 후에 상상적 방식으로 구성하는 가상적인 작가의 모습을 의미하는 부스의 내포 작가를 인용하여, 서사적 상상력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록 한다. 누스바움은 예술을 통한 서사적 상상력이 나의 행복뿐 아니라 타자의 행복까지 담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상적 놀이로 세상에 대한 반응 능력을 강화한 아이는 멀리 있는 타자를 나의 목표와 목적의 체계 속에 끌어들이는 것⁶⁾과 관련해 탄탄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라는 Nussbaum(2003, p. 54)의 말처럼, 예술을 통해 타자의 고통에 대하여 연민과 불쌍한 감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성장한 아이들은 사회에서 만나는 타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곤경에 빠졌을 때, 그들을 그러한 고통에서 구출하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 교육으로 서사적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다면, 건강한 소통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V. 서사적 상상력을 향한 음악교육

그렇다면 누스바움의 감정론은 음악교육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서사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하여 음악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로 치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누스바움의 감정론이 결국 예술을 통해 서사적 상상력을 기르고, 이로써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사유를 배우는 것을 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구체적 예시를 통해 음악교육이 서사적 상상력을 향하는 과정에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담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세기의 가장 진보적인 음악가로 평가받는 작곡가 펜데레츠키(K. Penderecki)의 『히로시마 희생자에게 바치는 애가』에 대한 연구자의 서사적 상상력을 제시해보겠다.

현악기들의 가장 높은 음이 강렬하게 귀를 찢는 듯한 포르테시모로 시작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들의 고통, 전쟁의 긴장과 두려움과 같은 키워드들을 표현하는 톤 클러스트, 현악기의 특수한 주법들, 박과 리듬의 모호함 속에서 상상을 펼치게 된다. 이 곡은 극음악이 아니기에 캐릭터와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가 담겨있지는 않지만, 음악이 만들어내는 불안, 소름, 공포, 숨 막힘과 같은 감정들을 히로시마 시민들과 연결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반응하는 방식으로 음악적 캐릭터에 감정적 반응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악을 통해 펜데레츠키에게 상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펜데레츠키가 붙여넣은 내포 작가에 대한 것으로, ‘비록 독일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이지만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옳은가?’를 묻고 있는 펜데레츠키를 상상적으로 구성하며, 전쟁과 인류애에 대한 내포 작가의 인생관에 동의하

6) 이는 인간 행위의 목적과 목표가 최종적으로 행복을 향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Nussbaum(2003)은 ‘서사적 상상력이 타자의 행복을 나의 행복주의의 목적이 되게 함으로써, 윤리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거나 혹은 비판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자는 전범인 일본을 대상으로 애가를 작곡한 내포 작가 펜데레츠키에게 처음에는 공감할 수 없었다. 이러한 나의 감정은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 고통, 분노에 대한 상상과 깊이 연결된 것이다. 하지만 곡이 작곡된 배경을 탐색하고, 곡을 거듭해 들으며, ‘폴란드 역시 독일의 침공으로 고통을 받았던 나라인데, 아마도 펜데레츠키는 전범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원자폭탄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건 부당하다는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곡을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전범국과 전범국의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국가, 민족, 집단에 대한 내가 느끼는 분노, 혐오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반성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감정으로, ‘우리나라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면? 21세기는 원자폭탄에 대해 안전한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것인가?’와 같이, 음악을 통해 전쟁, 원자폭탄, 죽음과 종말과 같이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내 삶과 연결하여 상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음악에서의 이러한 상상적 과정은 삶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평화, 인류애, 안정, 사랑, 죽음에 대한 성찰-에 대한 근거들을 조명함으로써 희열, 충만감, 기쁨, 깨달음을 느끼게 하였다.

이처럼 서사적 상상력이 펼쳐지는 과정은 음악교육이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첫째, 서사적 상상력을 음악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은 음악이 속한 맥락이라는 음악 외적인 앎과 음악의 형식, 요소, 개념과 같은 음악 내적인 앎을 모두 필요로 한다. 둘째, 이 곡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불편함, 두려움, 공포와 인간에 대한 증오와 같은 부정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는 불편한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동일화된 감정에만 머무르고자 하는 ‘감정적 안정주의’가 만연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다양한 시대와 내용 그리고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곡으로 교과서 수록곡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사적 상상력은 음악적 내용과 나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섬세한 과정이므로 성찰하기, 이해하기, 비평하기, 상상하기, 토론하기 같은 활동으로 음악학습활동(Min, 2014)을 다채롭게 구성해야 한다.

요컨대, 서사적 상상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음악교육은 음악의 내·외적 앎을 강조해야 하고, 다양한 감정과 사유를 담아낼 수 있는 수록곡으로 음악 교과서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음악학습활동을 입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더 상세히 논의함으로써, 서사적 상상력을 향한 음악교육의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음악 내 · 외적 앎

‘실체적 내용이 없는 감정 판단은 공허하고, 감정 판단 없이 객관성을 얻으려는 노력은 맹목적이다.’라는 달하우스(Dalhaus, 2001)의 말처럼, 학습자들은 음악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들이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는지, 그런 감정을 통해 어떤 사유가 생겨났는지 탐색해야 한다. 즉, 서사적 상상력을 음악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내용에 기반하여 감정을 탐색하는 과정을 요구하는데, 이는 음악의 이론과 형식에 대한 앎의 강조로 이어진다. ‘감정적 반응은 작품의 구조 속으로 짜 넣어지는 것(Nussbaum, 2003, p. 274)’이므로, 음악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음악의 내용이 담겨있는 구조나 형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음악의 이론이나 형식을 경시하면 안 된다(Nussbaum, 2003, pp. 274-276). 즉, 음악을 구성하는 음형(모티브), 리듬의 변화, 다이내믹, 음역, 화성, 조성들은 작품의 구조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은 작품 형식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음악의 이론이나 형식은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상상을 통해 사유와 감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음은 음악학자 해튼(Hatten, 1994)이 설명하는 피카르디(picardy third) 3도의 의미이다.

피카르디 3도는 단조성으로 마치는 악곡에 장3화음의 으뜸화음을 소개함으로써 장조성 대(對) 단조성의 대립을 첨예화시켜, 결국 새롭고 좋은 표현적 의미, 아마도 ‘터널의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의미를 초래한다(Hatten, 1994, p. 39).

‘단조의 곡이 장3화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정의되는 피카르디 3도를 이론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장3화음과 단조가 대비되어 터널의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과 같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곡의 화성적 변화에 대한’ 감상자의 판단을 담아냄으로써, 음악 이론을 사유와 감정으로 확장한다. 이처럼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형식을 재료로 학습자들은 서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컨대, ‘전개부-발전부-재현부’로 이루어지는 소나타 형식에서 전개부는 음악의 캐릭터(등장인물)들이 소개되는 과정이며, 조성, 화성과 리듬의 변화로 인하여 불안감, 극적인 감정, 초조감을 생성하는 발전부는 음악적 캐릭터들이 집을 떠나 좌절과 난관을 헤쳐가는 것으로, 재현부는 전개부에서 나왔던 음악적 캐릭터들과 조성이 다시 등장하므로, 주인공이 여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안정감, 평화, 안식의 감정으로 상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사적 상상력은 음악의 요소와 형식뿐 아니라 음악이 만들어진 맥락적 앎도 필요로 한다. 펜데레츠키의 『히로시마 희생자들을 위한 애가』에서 연구자가 음악의 요소나 형식뿐 아니라 작품이 만들어진 맥락에 대한 앎을 포함하여 음악을 상상

하였듯이, 음악을 서사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속한 전통, 작곡가의 전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Nussbaum, 2003, p. 247). 이에 따라 음악의 요소나 형식과 같은 음악 내적인 앎뿐 아니라 음악이 놓인 역사, 사회,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등의 음악 외적인 앎도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서사적 상상력은 음악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로 확장하며, 음악과 삶을 연결한다.

2. 음악 교과서 수록곡의 다양성과 균형

‘음악은 우리 마음의 심연을 파고들어, 우리 안의 사랑, 두려움, 즐거움의 감추어진 움직임 표현함으로써, 신비로운 방식으로 사물의 진상을 탐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영혼을 밝힌다.’라는 Nussbaum(2003, p. 459)의 말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인간군상 그리고 관계, 사건, 상황에서 생성되는 감정들의 층위를 음악이 담아낼 수 있음을 뜻한다. 『히로시마 희생자에게 바치는 애가』의 예에서 연구자가 따라갔던 감정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세계 2차대전을 배경으로 함에 따라, 오늘날에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는 감정들을 음악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경험하도록 하였다(Nussbaum, 2003). 결국, 논쟁, 다툼, 불안과 같은 부정의 감정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반향실에 갇혀 감정적 안정주의를 추구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문제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악 교과서는 다양한 시대와 내용 그리고 감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록곡을 선정해야 하며, 특정 시대나 장르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015 개정 음악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과서 수록곡은 한국 창작 음악과 전통 음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서양음악에 비해 높은 비율이며(Nam, 2018), 서양음악의 경우 18~19세기 곡들의 비중이 바로크나 현대음악에 비해 높은 편이다(Park, 2019). 전통 음악과 한국 창작 음악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와 역사를 탐색하게 하고, 이로써 나와 공동체, 내가 속한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 가치 있지만, 이들이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사적 상상력의 재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20세기 현대음악은 조성, 박자, 리듬, 주법과 표현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음악의 형식이나 요소를 전복하고 새로운 형식과 체계를 제시하였기에 낯설, 긴장과 불안, 난해함과 같은 감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부정적 감정들을 예술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즉, 현대음악은 아름답기만 한 음악이 가져다줄 수 있는 감정의 한계를 넘어, 깊고 강렬한 감정의 경험을 탐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많이 소개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Kim,

2017; Min, 2021; Park, 2019), 초·중등 음악 교과서에 현대음악을 소개하고 접근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학습자들이 흥미로워하는 곡으로 음악 교재와 수업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연구자의 이러한 주장은 ‘대중음악, 실용음악은 상상력을 제한하니, 서사적 상상력을 위한 음악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중음악 역시 서사적 상상력으로 나의 감정을 인식하게 하고, 행복주의에 타자를 포함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곡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대중적인 음악은 서사가 단편적이거나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생성하는 감정이 즉각적이고 휘발성을 갖는 경향이 있기에 학습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입체적인 음악학습활동

서사적 상상력을 위한 음악교육은 노래의 리듬에 몸을 맞추며 흥분되는 감정을 느꼈다거나, 친구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순간적이며 즉흥적인 즐거움에 머무르는 것으로 실천될 수 없다. Nussbaum(2003)의 감정론에 따르면, 신체적 반응에 가까운 엔트레인먼트(entrainment)와 싱크로니제이션(synchronization)⁷⁾, 감정 전염(contagion)과 같은 동시적 반응이나 즉흥적 감정은 ‘무엇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적 상상력은 음악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감정과 사유⁸⁾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감정을 인지적으로 탐색하게 하는 ‘활동’을 요구한다(Kim, 2012; Kim, 2015). 예를 들어, ‘이 곡을 감상(연주)하면서 어떠한 감정이 생겼는지, 어떠한 기분인지’와 같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단순히 인지하는 평면적인 음악 활동에 머무르는 것에서 나아가,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상상해보고, 그러한 맥락이 음악에 어떻게 표현된 것인지 모둠원들과 함께 탐색하거나, 음악의 한 부분이 자신에게 왜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친구의 감정과는 왜 다른지 상상하고 토론하거나, 최종적으로 이 음악을 통해 느끼게 된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7) 엔트레인먼트(entrainment)와 싱크로니제이션(synchronization)은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음악의 리듬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p. 324).

8) 그러므로 누스바움의 감정론은 실천적 음악교육 철학이 강조하는 정서로서의 음악교육(Choi, 2020) 보다, 느낌으로서의 경험 중심 음악교육철학과 더 유사한 면이 있다. 엘리엇(Elliott & Silverman, 2015)과 누스바움 모두 ‘emotion’을 강조하고 있지만, 엘리엇의 정서(emotion)가 몸에 기반하여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담아내고 있다면, 누스바움의 감정(emotion)은 의식 상태에 닿아있는 사유를 강조함으로써 리머의 느낌(feeling)과 비슷해진다. 하지만 리머의 경험 중심 음악교육은 최종적으로 ‘음악 내적인 읽’을 함함으로써 행복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담고 있지 않기에, 누스바움의 감정론과 차이를 보인다.

성찰하고 발표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감정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감정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탐색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실천될 수 있다.

따라서 음악학습에서의 생산, 재생산, 수용의 영역이 성찰, 정리, 전이 활동들과 다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음악학습활동(Min, 2014)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 A는 『바누와』라는 라이베리아 민요를 '가락을 익혀 노래 불러봅시다',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신체 표현을 해 봅시다', '노래와 어울리는 리듬 반주를 해 봅시다', '소리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래 불러봅시다'라는 네 개의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재생산(노래 부르기, 리듬 반주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과 '전이(노래 부르기와 신체 표현)'로만 활동을 구성한 것인데, 연구자는 '노래를 부르며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이러한 감정이 음악의 어떠한 특징과 연결되는지? 라이베리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사는 것 같은지?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와 같이, 재생산, 정리, 성찰, 전이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음악 활동 후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음악의 정리와 성찰을 연결함으로써 음악 교과서의 지도 방법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남채원(Nam, 2018)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서사적 상상력은 나의 감정이 어떠한 근거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음악이 속하는 맥락과 음악 안에서 탐색하는 과정이고, 이는 상상과 사유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음악을 여러 경로로 접근함으로써, 나쁜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로써 서사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음악교육 방안을 모두 논의해보았다. 음악의 내·외적 삶에 대한 강조, 음악 교과서 수록곡의 다양성과 균형, 입체적인 음악학습 활동은 음악교육에서 지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이기에, '이러한 접근들이 음악교육에서 새로운 것이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접근들이 서사적 상상력을 향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접근만으로는 서사적 상상력이 실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악의 내·외적 삶이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정과 사유로 확장되는 재료가 되고, 감정과 사유를 바탕으로 음악적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아(타자)의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서사적 상상력을 엮어가며 연결되고, 통합된다. 이는 음악 외적인 목적을 향하고 있음에도 음악 내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의미 있다.

그렇다면 서사적 상상력을 향한 음악교육은 어떠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음악이 만들어내는 서사와 감정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음악이 인간의 삶을 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음악학자 알멘(Almen, 2017, pp. 229-230)은 플롯(plot)에 따라 신화

를 네 가지 원형(four archetypes)으로 분류한 프라이(Frye, 1957)와 리츨카(Liszka, 1989)의 문학 비평이론을 사용하여, 음악에서의 서사를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는 (Almen, 2017) 인간의 인생이 복잡해 보이지만, ‘질서, 일탈, 승리, 패배의 연계와 대립’의 연속으로 이루어졌기에, 음악 분석에서도 이러한 네 개 원형의 조합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로망스는 질서가 일탈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며, 비극은 일탈이 질서에게 패배하는 것, 아이러니는 질서가 일탈에 패배하는 것(Liszka, 1989, p. 129)’과 같이, 음악의 구조도 문학과 유사한 형태로 인간 삶을 담아낸다. 음악(예술)도 삶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향한 움직임에서 장애물, 반전, 실망에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깊은 거리감, 우회, 확장, 개입과 같이 온갖 종류의 지연과 결부될 수 있으며, 일련의 사건들은 승리와 패배라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Schenker, 1979, p. 5). 따라서 서사적 상상력은 음악에 내재한 인간 삶의 다양한 이야기에 접근하도록 하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들과 감정들을 대비하고, 나아가 해결을 도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사적 상상력은 음악에 내재한 사랑, 깊은 슬픔, 갈망, 죽음, 삶의 의미, 선택, 의지, 용기, 절망, 두려움, 좌절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삶의 자양분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타자에 대한 공감적 태도와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에 가치 있다.

둘째, 음악의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Reimer, 2003)’이나 ‘신체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정서(Choi, 2020)’를 이야기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사유의 힘을 기를 수 있다. 서사가 있는 예술들은 등장인물이 있고, 인간 사회의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그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들과 갈등들이 가상의 상황과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므로(Krueger, 2015, p. 92) 이야기를 따라 구체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지만, 서사가 약한 음악은-물론 오페라 속에 다양한 인물들이나 노래의 가사들은 서사를 갖고 있지만-추상적이기에, 우리를 더 사유하게 한다. 요컨대, 서사적 상상력을 향한 음악교육은 사유를 깊고, 넓게 펼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가치 있다.

마지막으로, 서사적 상상력을 향한 음악교육은 음악을 매개로 나의 내면에 자리하는 원초적 감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통해 ‘타자의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주체적 감정을 발견하도록 이끌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치 있다. 이는 불편한 감정을 피해 반향실에서 공동화된 생각과 감정에 몰입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사유하게 할 수 있다. 즉,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감정은 단편적이고 공동화되어 사유를 가로막지만, 음악을 통한 서사적 상상력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사유와 연결함으로써 비판적이며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음악을 통한 서사적 상상력의 함양은 비판적이며 주체적인 자아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갖는 이들과 소통하게 할 수 있기에 가치가 있다.

최종적으로, 서사적 상상력을 향한 음악교육은 음악이 생성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삶에서의 감정과 사유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감정적 안정주의에 빠져 건강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오늘날, 다양한 감정들과 이에 연결될 수 있는 사유를 음악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상상하게 하는 음악교육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에 이바지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중략)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늙고 추악해지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를요(Huxely, 2007, pp. 211-212).

『멋진 신세계』의 주인공은 예술, 부정적 감정, 고통, 종교를 죄악시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가 바라는 시, 종교, 고통과 걱정, 위험, 선은 세상을 받아들이고, 소통하게 하는 것들이다. 21세기의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편향된 소통은 토론과 논쟁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들을 피하도록 만들었으며, 진실은 그저 자신의 믿음과 편안한 감정에 종속되는 하찮은 것이 되었다. 포스트 트루스는 진실을 찾기 어려워진 시대의 이면에 편향된 생각, 감정, 소통의 문제를 감추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예술에 내재한 다양한 감정을 사유로 확장하였던 누스바움의 감정론이 단편적이고 공동화된 감정에 빠져 소통하지 못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했다. 예술은 세계 속 인간들의 유형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아낼 수 있으며, 예술을 통해 작동하는 서사적 상상력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감정들을 깊게 사유하게 하기에, 타자에 대한 공감적 태도와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소통을 위해 음악교육은 누스바움의 서사적 상상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사적 상상력을 음악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내용에 기반하여 감정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음악 내·외적 앎 대한 강조, 음악 교과서 수록곡의 다양성과 균형, 입체적인 음악학습활동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사적 상상력은 추상성이 강한 음악을 매개로 깊고, 넓은 사유로 나아가게 하고, 나의 내면에 자리하는 원초적 감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고 사유하게 함으로써, 타자의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감정과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요컨대, 서사적 상상력을 향한 음악교육은 불편한 감정을 피해 반향실에서 공동화된 생각과 감정에 몰입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사유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소통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방향은 자칫 음악교육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행위로서의 연주보다는 음악적 판단으로서의 감상 활동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서사적 상상력이 창작이나 연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최근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이 “우룩이 ‘애이불비(哀而不悲): 애절하지만 슬프지 않다’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것을 상상하며 연주하였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Wang, 2022), 서사적 상상력은 음악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감상뿐 아니라 연주와 창작 영역에도 서사적 상상력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서사적 상상력의 핵심은 음악적으로 상상하기이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상상력을 제시하고, 음악 교과서에서 상상하기의 활동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상상력은 내용 체계나 성취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이 내용 체계의 표현 영역에 상상력을 넣은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발표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초안)’의 초등학교 3~4학년 군 창작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에 ‘상상’을 포함한 것은 의미 있으며, 이에 따라 음악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서사적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사적 상상력을 향한 음악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담론을 위한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시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를 탐색할 수 있는 비판적, 성찰적 사고, 과학적 사고로 이어질 때 포스트 트루스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디지털 리터러시 및 시민성 함양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lmen, B. (2017). *A theory of musical narrative*.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Australian Government (2022). Is it true? Can Covid-19 vaccines alter my dna? *Department*

- of Health and Aged Care*. Retrieved July 28, 2022, from <https://www.health.gov.au/initiatives-and-programs/covid-19-vaccines/is-it-true/is-it-true-can-covid-19-vaccines-alter-my-dna>
- BBC News Korea (2020). Covid-19, Because of 5G? Base station arson in Britain. *BBC News*. Retrieved July 28, 2022, from <https://www.bbc.com/korean/news-52171586>
- Berman, R. (2020). Covid-19 and the surge in anti-Asian hate crimes. *Medical News Today*. Retrieved July 28, 2022, from <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covid-19-and-the-surge-in-anti-asian-hate-crimes>
- Booth, W. C. (1961).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well, T. (2017). Response to the editorial ‘education in a post-truth world’.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9(6), 582-585.
- Britt, M. A., Rouet, J. F., Blaum, D., & Millis, K. (2019). A reasoned approach to dealing with fake news.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6(1), 94-101.
- Brun, G., & Kuenzle, D. (2016). A new role for emotions in epistemology? In Brun, G., & Doguoglu, U. (Eds.), *Epistemology and emotions* (pp. 1-31). London: Routledge.
- Buckingham, D. (2019). Teaching media in a post-truth age: Fake news, media bias and the challenge for media/digital literacy education. *Culture and Education*, 31, 213-231.
- Chinn, C. A., Barzilai, S., & Duncan, R. G. (2021). Education for a post-truth worl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Educational Researcher*, 50(1), 51-60.
- Choi, J. K. (2020). The exploration of meaning inherent in change in the educational aim of praxial music education.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5(3), 181-209.
- _____ (2021). Rethinking the direction on music education philosophy in the digital prosumer era.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9(2), 191-211.
- Chu, B. W. (2021). Civic virtues in the era of post-truths. *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72, 145-168.
- Coleman, P. T. (2021). *The way out. How to overcome toxic polar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ollins, H. (2014). *Are we all scientific experts now?* Cambridge, MA: Polity.
- Cramer, F. (2015). What is ‘post-digital’? In Berry, D., & Dieter, M. (Eds.), *Postdigital aesthetics: Art, computation and design* (pp. 12-26).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Dahlhaus, C. (2001). *Analysis and value judgement*. Trans. Oh, Y. R. & Yoen, S. C. Seoul: Mikro.
- Danvers, E. C. (2016). Criticality's affective entanglements: Rethinking emotion and critical thinking in higher education. *Gender and Education*, 28(2), 282-297.
- Elgin, C. Z. (2016). Emotion and understanding. In Brun, G., & Doguoglu, U. (Eds.), *Epistemology and emotions* (pp. 33-49). London: Routledge.
- Elliott, D. J., & Silverman, M. (2015). *Music matt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mcke, C. (2017). *Hate society*. Trans. Jeon, J. I. Paju: Dasan Books.
- Frye, N. (1957).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lardi, F., Gessler, T., Kubli, M., & Muller, S. (2021). Social media and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in Switzerland.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7(2), 243-256.
- Gill, C. (2010). Stoicism and epicureanism. In Peter, G. (Ed.),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emotion* (pp. 143-16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oss, D. M. (2007). *The secret history of emotion: From Aristotle's rhetoric to modern brain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nkel, D. (2012). What does it matter who is speaking? Authorship, authority, and the mashup. *Popular Music and Society*, 35(1), 71-91.
- Hart, P. S., Chinn, S., & Soroka, S. (2020). Politicization and polarization in COVID-19 news coverage. *Science Communication*, 42(5), 679-697.
- Hatten, R. S. (1994). *Musical meaning in Beethoven: Markedness, correlation, and interpretatio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Huxley, A. (2007). *Brave new world*. London: Penguin Random House.
- Illouz, E. (2019) A brief history of bullshit: Why we've learned to ignore truth. *Haaretz*. Retrieved May 28, 2022, from <https://www.haaretz.com/israel-news/2019-09-14/ty-article-magazine/.premium/a-brief-history-of-bullshit-why-weve-learned-to-ignore-e-truth/0000017f-e3fb-d75c-a7ff-ffff490f0000>
- Jiang, J., Chen, E., Yan, S., Lerman, K., & Ferrara, E. (2020). Political polarization drives online conversations about COVID-19 in the United States. *Human Behavior and Emerging Technologies*, 2(3), 200-211.
- Kavanagh, J., & Rich, M. D. (2018). *Truth decay: An initial exploration of the diminishing role of facts and analysis in American public lif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Kim, M. J. (2017). Development of web-based courseware for contemporary music learn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1), 155-173.
- Kim, S. M. (2012).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in music class using academic writing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2), 125-146.
- Kim, Y. J. (2015). Effects of instrumental ensemble program applied of cognitive apprenticeship theor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1), 25-50.
- Krueger, J. (2015). Empathy beyond the head: Comment on music, empathy, and cultural understanding. *Physics of Life Reviews*, 15, 92-93.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Y. J., & Kwon, E. (2020). Fake news and foci of literacy education in the post-truth era.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1(6), 101-134.
- Lewandowsky, S., Ecker, U. K., & Cook, J. (2017). Beyond misinformation: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the post-truth era.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6(4), 353-369.
- Lexico (2016). post-truth. *Oxford Lexico*.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lexico.com/en/definition/post-truth>
- Liszka, J. J. (1989). *The semiotic of myth: A critical study of the symbol*.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Lynch, M. P. (2016). *The internet of us: Knowing more and understanding less in the age of big data*. New York: Liveright Publishing & Corporation.
- McIntyre, L. (2018). *Post-truth*. Cambridge: MIT Press.
- Metz, S. E., Weisberg, D. S., & Weisberg, M. (2018). Non-scientific criteria for belief sustain counter-scientific beliefs. *Cognitive Science*, 42(5), 1477-1503.
- Min, K. H. (2014). Development of the analysis criteria for effective analysis of music textbook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2(2), 43-66.
- _____ (2021). Is it possible to transform music textbooks in the new normal era? *Proceedings of Korea Music Educators Society in the Summer Conference*, 101-108.
- Ministry of Education (2021). *The main points of the general outline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orton, A. (2010). Epistemic emotions. In Peter, G. (Ed.),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emotion* (pp. 385-39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uis, K. R., Etoubashi, N., & Denton, C. A. (2020). The catcher in the lie: The role of emotions and epistemic judgments in changing students' misconceptions and attitudes in a post-truth era.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62, 1-13.
- Muis, K. R., Chevrier, M., Denton, C. A., & Losenno, K. M. (2021). Epistemic emotions and epistemic cognition predict critical thinking about socio-scientific issues. *Frontiers in Education*, 6, 1-18.
- Na, U. C. (2021). Bill Gates on Covid-19 conspiracy theories: Will people really believe it? *The Joongang*. Retrieved July 28, 2022,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80130#home>
- Nam, C. W. (2018). *A study on the analysis of music textbooks for the four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based on the revised 2015 education curriculum*.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Nguyen, C. T. (2018). Escape the echo chamber. *Aeon*. Retrieved May 30, 2022, from <https://cs50.harvard.edu/ap/2022/curriculum/x/labs/10/chamber.pdf>
- _____ (2020). Echo chambers and epistemic bubbles. *Episteme*, 17(2), 141-161.
- Nussbaum, M. (1994). *The therapy of desire: Theory and practice in Hellenistic ethic*.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Boston: Beacon Press.
- _____ (2003).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S. G. (2019). *Analysis of classical music materials in 2015 revised elementary music textbook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lato (2013). *Theaitetos*. Trans. Jung, J. Y. Seoul: EJB.
- Prado, C. G. (Ed.) (2018). *America's post-truth phenomenon: When feelings and opinions trump facts and evidence*. California: Praeger.
- Rauch, J. (2021). *The constitution of knowledge: A defense of truth*.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Reimer, B. (2003).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dvancing the vision*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Ryu, Y. M. (2020). Beyond the epistemology of post-truth: Community of truth or community of conversation.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 Information Studies*, 99, 120-147.

Schenker, H. (1979). *Free composition*. Trans. Ernst, O. (Ed.). New York: Longman.

Wang, J. M. (2022). Imagining Uruk. *MBC News*. Retieved August 17, 2022, from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2114_35744.html